

JEONJU INT'L SORI FESTIVAL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연차보고서

2024
ANNUAL REPORT

주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Sori**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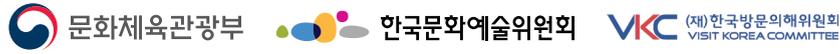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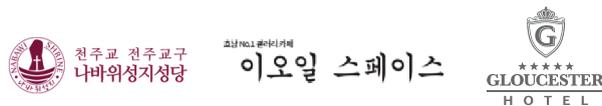
협찬사



파트너



지역협력기관





CONTENTS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요 **04**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06**

소리축제: 네 계절 **08**

Something NEW **10**

Something SPECIAL **13**

Something TOGETHER **14**

축제 설문평가 **16**

전문가 리뷰 **18**

인터뷰 **20**

사진으로 본 2024 소리축제 **22**

2024 스태프 **24**

전주세계소리축제 연보 **26**



2024 JEONJU INT'L SORI FESTIVAL

방문객

41,099명

아티스트

800명

프로그램

80개 (106회 공연)

국가

13개국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요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키 워 드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 (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

일 시 2024. 8. 14.(수) ~ 18.(일) / 5일간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

주 최 / 주 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키워드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

소리축제는 올해 8월 여름 축제로 개최 시기를 옮김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확장에 주목하며 키워드를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으로 내세웠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서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선언적으로 표방하며,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글로벌적 시선부터 시대, 세대, 장르, 지역적 해석의 시선까지 다양한 프리즘으로 탐구해 보고자 했다.

포스터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포스터는 'SORI' 각 글자에 의미를 담아내어 도형으로 형상화한 소리축제 로고의 도형을 활용하고 키워드인 '로컬 프리즘'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표현했다. 이 안에는 소리축제만의 독보성과 고유성이 담겨있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포커스 2024: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 Focus on 2024

- 개막공연 <잡색X>
-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

전통: 오래된 결 Being Heritage

- 판소리 다섯바탕
 - 김영자, 왕기석, 채수정, 이자람, 박가빈
- 청춘예찬 젊은판소리
 - 김송지, 조정규, 강현영, 이정인, 박수범
- 산조의 밤 <지성자, 정회천>
- 풍물굿 열전
 - 이리농악, 고창농악, 전주기점놀이 × 일본 이시가와현 타케베 시시마이, 강릉농악, 진안중평굿

창작&컨템포러리: 동시대 우리 음악 Creation & Contemporary

- 프로젝트날다 × 천하제일탈공작소 <니나내나 니나노>
- 음악극 <적로-이슬의 노래>
- 강은일 해금플러스
- 전주의 아침
 - 리코더와 정가가 들려주는 노래, 랜디 레인-루쉬&메이 한의 월드뮤직, 시대가 전하는 춤 이야기
- 소리프론티어 × 소리의 탄생2
 - 추리밴드, 국악 이상, 삼산

클래식&대중음악: 소리 인터페이스 Special & Popular

- 전주세계소리축제 × 전북 CBS <정경화&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세종솔로이스츠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 호남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녹두'>
- 글렌체크/타이거 디스코
- 윈디시티 × 이박사
- 대니 구&조윤성 트리오

해외초청&월드뮤직: 대화와 소통 World Music Today

- [폴란드 포커스]
 - 피오토르 다마시에비치 - 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
 - 볼로시 x 채수현
- [네덜란드 x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비트
- [아일랜드 x 이탈리아] 타란타켈티카
- [일본] 해설이 있는 사자춤 <이시가와현 타케베 시시마이>
- [말레이시아] 이스타나 부다야 전통음악 앙상블
- [베트남] 전통 앙상블 <뚜 쿠이>
- [태국] 포크트로니카 <니사티와>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Kids & Family

- 재활용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
-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木林森)>
- [폴란드 포커스] 마웨 인스트루먼티
- [체코] 오브제 시어터 <리틀 비지터>
- 세계음악여행 - 아일랜드&이탈리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찾아가는 소리축제&아카데미: 글로컬 랩 Glocal Lab

- 소리학술포럼
- 소리캠프
- 찾아가는 소리축제

지역	장소	프로그램
임실	대리초등학교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
순창	순창군립도서관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
익산	익산금마도서관	해설이 있는 판소리: 이용선 명창 (고수_오희민)
고창	고창고등학교	한지인형극 <동동동 팔죽할멈>
진안	조림초등학교	한지인형극 <동동동 팔죽할멈>
군산	군산예술의전당	해설이 있는 콘서트: 루마니아 랩소디 (사회/해설_신경아)
정읍	이오일스페이스	뮤즈그레인/고성지 트리오
부안	부안북한커뮤니티센터	릴리 컴퍼니
완주	고산고등학교	[체코] 퍼포먼스 워크숍 <Spirits of Plants>
남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체코] 퍼포먼스 워크숍 <Spirits of Plants>
김제	지평선고등학교	월드뮤직 워크숍 <아일랜드 x 이탈리아>
장수	논개골행복나눔터	월드뮤직 워크숍 <폴란드>
무주	무주초등학교	월드뮤직 워크숍 <베트남>



소리축제: 네 계절



1월 ~ 3월

-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문화관광국과의 아티스트 교류 공연
- 통영국제음악제에 올려 퍼진 김일구 명창의 적벽가

4월 ~ 6월

- 24년 만에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전면 개편
- 소리축제 로고와 여름 콘셉트 주제의 어린이 로고 꾸미기 대회
- 전북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소리축제, 4월부터 시작
- 전주세계소리축제 x 전주MBC '소리프런티어' 공동 기획 협약 체결
- 2024 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전주, 서울서 개최
- 월드뮤직 렉처콘서트 '2024 월드뮤직 아카데미' 6월 첫 선



7월~9월

- ◎ 소리축제 자원활동가 '소리천사' 발대식 진행
- ◎ 닷새간의 음악 여정, 8월 14일 2024 전주세계 소리축제 개막

10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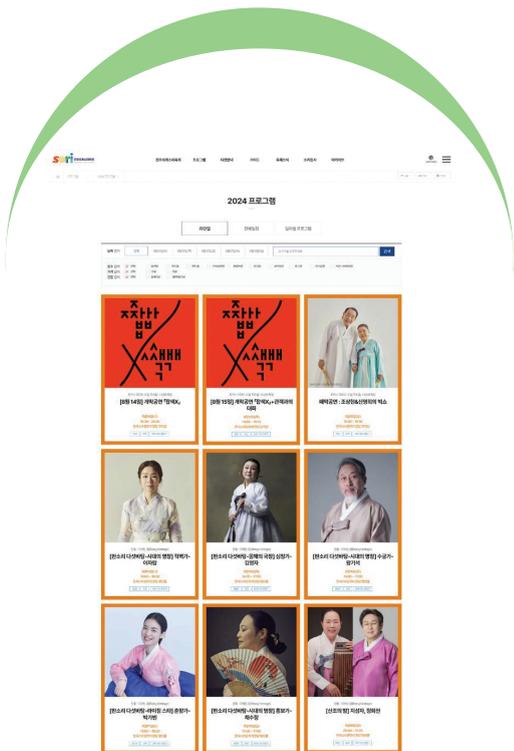
- ◎ 소리축제, 국제 공연예술 플랫폼 서울아트마켓에 홍보 부스 오픈
- ◎ 2024 소리프론티어 3개팀 '저니투코리아뮤직' 무대에 오르다!
- ◎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re:Orient> 공연 캐나다 4개 도시 투어
- ◎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전주 공연 개최

Something NEW



여름 축제로 새롭게 변화한 2024 소리축제

올해 소리축제는 8월로 축제 일정을 옮기며 여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들을 꾀했다. 2021년부터 공연 예술제로의 방향성을 갖고 변화를 추구해 온 소리축제는 올해 전통예술 기반의 수준 높은 작품들은 실내 공연장으로, 대중 친화적인 공연들은 야외공연장으로 이원화해 운영함으로써 축제의 차별성을 두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예술성과 축제성을 갖춘 축제로 거듭나고자 했다. 여름 축제로의 변화는 공연 관객뿐만 아니라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이한 가족 단위 및 관광객을 흡수했고, 국악 전공자들과 예술가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커다란 장을 열었다. 특히, 객석 점유율 82%를 돌파하며 여름 축제로 변화한 첫해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4년 만의 홈페이지 새 단장, 시스템 전면 교체

2000년도에 제작된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가 24년 만에 새롭게 전면 재구축됐다. 매해 디자인과 프로그램 리뉴얼을 진행했으나 시스템의 노후화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는 예산 확보를 통해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최신 트렌드에 맞게 관리자 및 이용자의 효율성, 접근성, 편리성을 높였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호환 및 프로그램 간 충돌을 방지해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했다.

업무 협약 식

15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2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

올 한해 소리축제는 각 기관과 굵직한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전주MBC'와는 공동기획으로 국악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소리프론티어×소리의 탄생2>를 함께 운영했으며, 예선부터 결선까지의 전 과정을 촬영해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 이를 통해 최종 결승에 오른 3개 팀(추리밴드, 국악 이상, 삼산)은 '서울아트마켓-저니투코리아 뮤직 2024'에서 자신들의 무대를 선보일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는 '2024 차세대 아시아 음악인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아시아 유망 신진 음악 공연팀으로 선발된 3개 팀(말레이시아-이스타나 부다야 전통음악 앙상블, 베트남-전통앙상블 뚜 쿠이, 태국-니사티와)은 올해 소리축제 무대에서 개성 있는 음악을 선보였다.

김일구 명창, 통영국제음악제 무대에 오르다!

3월의 초봄, '통영국제음악제'에 시원한 우리 소리 한 자락이 울려 퍼졌다. 소리의 살아있는 역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적벽가) 김일구 명창이 통영국제음악제 무대에서 박봉술제 적벽가를 선보인 것! 현대음악제에서 판소리 공연이 열리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뜻깊은 일인 만큼 기관 협력을 통해 소리축제가 성사시킨 이 공연은 더욱 의미가 깊다. 김일구 명창은 적벽가의 주요 눈대목을 중심으로 약 80분간 땀에 흠뻑 젖을 만큼 열창했으며, 뜨거운 관심 속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해외 초청, 폴란드를 포커싱하다!

2024 소리축제는 한국-폴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폴란드 문화부 산하기관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Adam Mickiewicz Institution, IAM)과 함께 협력하여 특별 프로그램 <폴란드 포커스>를 기획했다. 남성 현악 5중주의 강렬한 매력을 선사했던 '볼로시'의 무대, '볼로시'와 한국의 경기민요 소리꾼 '채수현'의 콜라보 공연은 지역 명소인 익산 나바위성당에서 펼쳐져 소리축제만의 독특함을 선보였다. 민족음악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음악적 언어로 표현해낸 '피오토르 다마 시에비치-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는 문화와 음악을 동시에 선보이며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어린이 소리축제, 해외 우수한 공연작품까지 확대

축제 속의 작은 축제 <어린이 소리축제>가 올해는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음악, 설치미술, 서커스 등)의 수준 높은 해외 공연들로 확대됐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각종 소품을 활용한 소리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선보인 폴란드의 <마웨 인스트루먼티>, 색과 종이, 붓으로 그리는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준 체코의 <오브제 씨어터-리틀 비지터> 그리고 해설과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세계음악여행>에서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음악을 결합하여 선보인 '타란타켈 티카', 폴란드 대표 재즈 음악가와 남부 하이랜더 출신의 민속음악가들로 구성된 '피오토르 다마시에비치-Into the Roots with Highlanders'가 어린이 및 가족 단위 관람객 모두에게 다양한 음악과 문화적 경험 그리고 추억까지 선사했다.



'같이의 가치'를 실현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축제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했다. 농악을 주제로 한 개막공연 <잡색X>에는 잡색으로 함께할 도민 참여자 모집을 통해 커뮤니티 잡색으로 이름을 붙여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소리프론티어x소리의 탄생2>에서는 관객심사단을 모집해 도민들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기간 축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던 플리마켓 및 푸드트럭 운영 역시 도내에 소재지를 둔 팀들로 꾸러졌으며 관객들에게 축제의 색다른 재미를 선물했다.

Something SPECIAL

2024 소리축제는 본 축제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연간 프로젝트로 기획했다. 4월, 첫 사업의 시작을 알린 '찾아가는 소리축제', 6월과 7월 렉처 콘서트 형태로 꾸러진 '월드뮤직 아카데미', 7월과 8월 국/내외 음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 '소리캠프', 11월 송년특별공연 '종묘제례악', 다양한 국내외 협력 사업들까지 소리축제는 올 한해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연간 프로젝트로 변신 찾아가는 소리축제

지나해 학교를 벗어나 전북 14개 시군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영역을 넓힌 '찾아가는 소리축제', 올해부터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도민들이 연간 만날 수 있도록 기획했다. 4월, 임실 대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 축제 마지막 날인 8월 18일 무주초등학교까지 올해의 찾소 여정은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한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앞으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초여름 밤의 세계 음악 여행 월드뮤직 아카데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젊은 월드뮤직 연주자 임시내(반도네온), 한샘바위(시타르), 박혜리(아이리쉬 휘슬&아코디언), 마롱(비파)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이야기와 연주를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월드뮤직 아카데미>가 지난 6월과 7월, 전주 한옥마을 내 위치한 하안양옥집에서 펼쳐졌다. 월드뮤직센터와 공동 기획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남미, 인도, 동아시아까지 매주 다른 문화권의 음악과 악기를 선보이며 다양한 음악과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다.



국내/외 음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리캠프

올해 소리축제는 국내/외 음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전북의 풍성한 전통음악과 자산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합숙형 캠프 프로그램인 '소리캠프'를 마련했다. 7월에는 멜버른 대학교 재즈&즉흥음악 전공생 20여 명이 고창농악보존회와 전주문화재단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8월 축제 기간에는 국내 한국음악 전공자들이 참여해 소리축제의 주요 공연들을 관람하고 전문가 특강 및 국내외 아티스트들과 직접 만나 다양한 음악적 경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말을 풍성하게 장식한 송년특별공연 종묘제례악

소리축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 공연을 마련했다.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종묘제례악>을 전주에서 선보인 것! 국립국악원과 공동 기획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조선 왕조의 부리가 있는 전주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있었다. 또한, 종묘제례악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 전후 로봇 악사들의 '일무'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연말의 즐거움까지 전했다.



Something TOGETHER

UAE 아부다비 문화관광국 상호 국제교류사업 초청공연



지난해 소리축제는 2022년부터 추진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문화관광국의 상호교류사업을 통해 아티스트 교류 공연을 마련했다. 소리축제 기간에는 '다와슬 앙상블'을 초청해 한국에서 공연을 선보였고, 11월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타악팀 '듀오벳'이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초청되어 멋진 무대를 선사했다. 첫 교류에 이어 올해 3월에는 한국 타악기의 거장 김동원과 대금 이성구, 해금 국재환이 버클리 아부다비(Berklee Abu Dhabi)에 초청되어 아랍 음악가들과의 콜라보 무대를 통해 한국과 아랍 음악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KBS, 한경arteTV, 특집 중계방송 등 홍보 협력 강화

지난해 미디어 및 방송사와의 협력을 확대했다면 올해는 협력 강화를 통해 홍보의 폭을 대폭 넓혔다. 개막공연 <잡색X>와 폐막공연 <조상헌 & 신영희의 빅쇼>는 KBS 녹화 중계 촬영을 실시했으며, 9월 추석 특집 방송으로 방영함으로써 관객들이 방송을 통해 소리축제의 대표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경arteTV를 통해서도 <판소리 다섯 바탕>과 <산조의 밤>을, 국악방송 라디오를 통해서도 <판소리 다섯 바탕>과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를 내보냄으로써 우리 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악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소리프론티어' 전주MBC와 공동기획



국악의 창작 활성화와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로 시작된 소리축제의 '소리프론티어'가 올해는 전주MBC와 손을 잡고 '소리프론티어 x 소리의 탄생2' 경연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추리밴드', '국악 이상', '삼산' 3개 팀이 결승에 오른 가운데 최종 1등 JB소리상(상금 1,000만원)은 '삼산'이 거머쥐었고, 공개 오디션과 공모, 경연 과정 등은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 팀들은 10월, '서울아트마켓-저니투코리아뮤직 2024' 무대에 오르는 기회를 가졌으며, 소리프론티어에 참여했던 '곳고리 PLI'는 9월 '광주 버스킹 월드컵-아시아 뮤직 서민인 광주' 쇼케이스에 초청되어 공연을 선보였다.



아시아 음악인 발굴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손잡다!

올해 소리축제는 2024 한국-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행한 '차세대 아시아 음악인 교류 프로그램'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신진 음악인을 발굴하고 국제 교류의 기회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국제 행사로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정부 및 전문인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최되었으며, 각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두 차례의 국제 심사를 거친 후 아시아 유망 신진 음악 공연팀을 선발했다. 올해 선발된 말레이시아 '이스타나 부다야 전통음악 앙상블', 베트남 '전통앙상블 두 쿠이', 태국 '니사티와' 3개 팀은 8월, 전주세계소리축제와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의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음악을 선보였다.



소리축제 판소리 국제협업 프로젝트 <re:Orient>, 11월 캐나다 4개 도시 투어

지난해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소리축제와 월드뮤직 앙상블 '콘스탄티노플'은 공동제작을 통해 <re:Orient> 공연을 제작했다. 이 공연은 소리축제의 세 번째 판소리 프로젝트로 올해 세계 최대 공연예술마켓 시나르(CINARS)의 공식 쇼케이스로 최종 선정되어 2025년 유럽투어 및 2단계 공동제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지중해 고음악에 또 다른 오리엔트 음악인 판소리를 결합한 이 공연은 지난 11월, 캐나다 4개 도시(밴쿠버, 빅토리아, 몬트리올, 퀘벡)에서 총 5회 공연을 진행했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캐나다 현지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관객들은 열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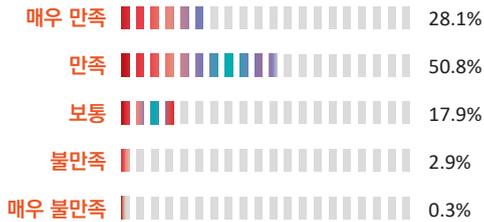
축제 설문평가

“타지역 거주 방문객 47.2%,
전국구 여름 휴가지로 탈바꿈한 소리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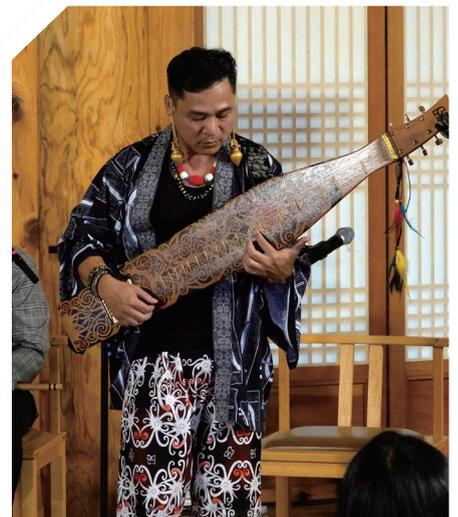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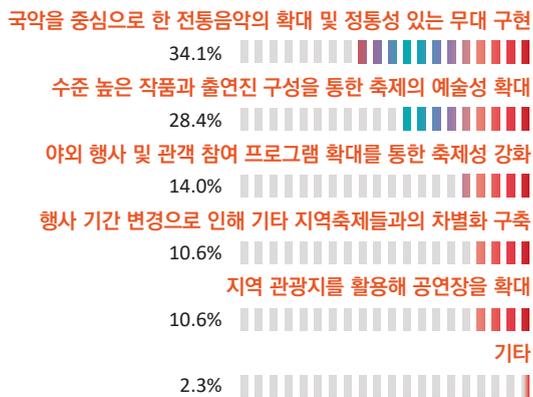
전체만족도 평가

개최시기의 변화가 있었으나 만족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평균 만족도 점수 4.04점(5점 척도)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축제성과 평가

응답자 중 34.1%가 국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음악의 확대 및 정통성 있는 무대 구현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으며, 수준 높은 출연진 구성을 통한 축제의 예술성 확대도 28.4%로 높게 평가되었다.



소리축제의 이미지와 포지셔닝

판소리, 국악 중심의 축제라는 이미지가 확고한 가운데 지역민들에게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장르와 해외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축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민과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적 역량 강화와 향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부분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판소리 보존 및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축제



국내의 음악을 소개하고 아티스트들이 교류하는 장



전북을 대표하는 이미지 구축사업



지역예술가 및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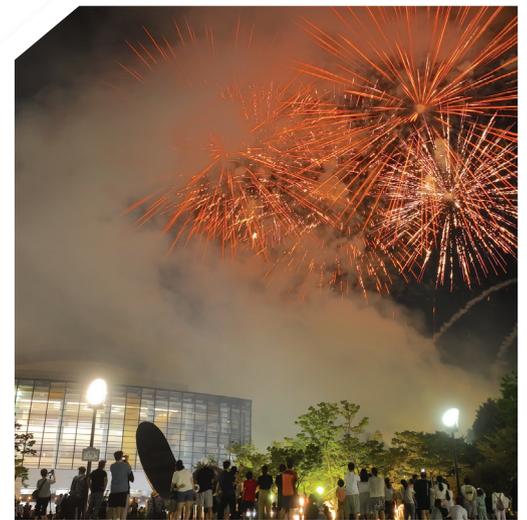


재방문의향 및 추천의향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는 평균 4.30점(5점 척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의향은 평균 4.2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축제 마니아층이 지역을 넘어 전국구로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방문 의향 4.30

추천 의향 4.28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여름 축제로의 전향과 로컬 프리즘이라는 주제를 반영한 실험적 시도가 돋보였다. 그간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매김한 가을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과감한 변화를 선보였으며, 여름이라는 특성에 맞춰 역동성이 수반된 공연과 정적이면서도 밀도 있는 공연의 영리한 배치가 이루어졌다. 농악과 판소리 등 전북의 우수한 전통예술자원을 다양한 실험적 무대로 선보일 수 있는 것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소리축제가 가능하다.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소리축제는 진정한 예술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문가 리뷰



“지금 여기의 새로운 풍물굿을 제시”



많은 의도, 상징과 장치들이 있었음에도 작품이 어려웠냐? 재미가 있었느냐? 충분히 대중적이었냐? 나는 일단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 <잡색>에는 흥미롭고 재밌는 그리고 적당히 사회성 있는 현대의 잡색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스태프와 여러 구조물도 잡색이다.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춤 추고 노는 잡색들, 즐거운 표정과 몸짓의 커뮤니티 잡색(지역의 일반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히 재미졌다.

조춘영 / 풍물담론가(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

월드뮤직, 다양한 소리와 서사(敍事)의 향연(饗宴)



전통을 있는 그대로 따를 것인지, 이를 활용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것인지는 온전히 창작자들의 선택이다. 말하자면 월드뮤직은 후자에 무게중심이 실린 경우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만난 여러 월드뮤직 공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소리프론티어를 통해 소개된 한국의 젊은 음악인 삼산의 것이었다. 나는 그 공연에서 강박에 갇히지 않은 건강한 영혼을 봤다.

김현준 / 음악평론가, 공연기획자, 프로듀서



우리 소리의 오래된 첨단, 국창 조상현 신영희를 만나다



조상현과 신영희, 두 사람의 소리는 과연 랜드마크이되 희색 콩크리트의 구조물이 아니었다. 웅대한 자연의 배경과 하나가 된 듯했다.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여덟 폭의 병풍이, 세월 따라 접고 접은 팔순의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돼 있었다. 우리 소리의 정전(正傳)이 무엇인지, 정점(頂點)은 어디인지가 궁금할 때 향후 언젠든 펼쳐볼 수 있는, 오래된 첨단으로 꽃 피어 있었다.

임희윤 / 음악평론가



전통의 색(色)을 확장하다



올해 소리축제의 가장 주목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지역 전통예술에 기반한 특색있는 기획의 개막공연과 전승의 의미를 되새긴 폐막공연, 그리고 한옥 마을 전라감영의 <전주의 아침> 프로그램의 특화였다. 선화당에서 울린 고대의 리코더 음악과 정가가 들려주는 심오한 선율과 노래는 깊은 감명을 전했다. 익산 나바위성당의 폴란드 포커스는 관광과 연계한 지역의 장소적 특성이 음악과 어우러질 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수민 / THE MOVE 기자



관객 발길 이어지며 예술성·대중성 잡다



결과적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한데 모은 공연과 함께 즐기는 여름휴가 컨셉의 축제 기획이 성공한 셈이다. 각 기관과의 프로그램 협력과 후원을 폭넓게 이뤄내 팸투어, 소리열차, 소리캠프, 여름휴가 등을 이용한 외지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난 점도 호재다.

김미진 / 전북도민일보 문화교육부장

축제는 관객의 것



축제는 관객의 것이었다. 기획자의 의도를 알든 모르든 그 순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관객들의 환희가 되고 땀방울이 되고 추억이 되었다. 제각각의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관객들이 있으니 축제는 다시 이어질 것이었다. 우리는 내년에도 설리며 전주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서정민갑 / 대중음악의견가



인터뷰

삼산 소리프론티어 참여 아티스트

〈소리프론티어×소리의 탄생2〉를 시작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뜻깊고 즐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저를 환영해주던 다양한 관객들과 크고 넓었던 무대, 뜨거운 분위기까지 저는 아마 오래오래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험뿐만 아니라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만났던 다양한 예술들은 제게 기분 좋은 자극이 되어 새로운 음악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상에서 추억해 나가며 또 다른, 재미있는 무대로 다시 한번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만나 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니사티와 Nisatiwa 해외공연팀태국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민속음악을 알게 되었고,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콘서트에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국의 음악을 한국의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모든 음악가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송지용 개막공연 <잡색> 커뮤니티 잡색 참여자

인스타에서 <잡색> 참여자 모집을 보고 '이건 나를 위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참여 신청서를 썼습니다. 기존 풍물에서 잡색이 가지는 본질적 개념을 해치지 않으면서 확장적이고 현대적으로 잡색을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장적이고 현대적인 잡색으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던 저의 의도와 맞아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또 큰 스케일과 무대에서 훌륭한 아티스트들과 작업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은혜 우수 소리천사

소리천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소리축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다양한 나라의 음악들로 흥겨울 수 있어서 '나 완전 축제 체질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소리축제에 참여하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사팀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축제를 이끄는 팀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축제 현장을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팀이어서 많은 추억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예지 최우수 소리천사

소리천사로 활동하면서 관객 안내, 공연 준비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되었지만, 관객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객들이 전통 국악 공연을 보고 놀라워할 때,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단순한 공연의 집합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뒷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주의 문화와 음악을 알리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해 소리의 매력을 느끼고, 전주만의 따뜻함과 음악의 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길 기대합니다.



사진으로 본 2024 소리축제



JEONJU INTERNATIONAL FESTIVAL 2.2/23



2024 스태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임원

명예조직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직위원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집행위원장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부위원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교수
상임위원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	이화동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조직위원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교육부장
김병오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원용	전북일보 국장(완주 주재)
김일구	판소리 명창(전문예술법인 온고을소리청 대표)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금섭	변호사(법무법인(유)광장(Lee&Ko)변호사)
백학기	시인, 영화인,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장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CEO
소영주	(주)코리아오티씨 연구소장/중구문화재단 이사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前CNN한국지국장)
신기동	한미회계법인(제1본부 본부장)
심인택	우석대학교 국악과 명예교수(前국립남도국악원 예술감독)
왕기석	판소리 명창(前국립민속국악원장)
유희철	前전북대병원장(간담체이식혈관외과)
이경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미배	전북대학교 음악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정지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조유식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최고투자책임자(설립자)

집행위원

한승석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
강권순	무형유산 제30호 여창가곡 이수자
윤중강	음악평론가/연출가
이태백	목원대학교 한국음악학부 교수
김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교수
허윤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블랙스트링 대표
김성국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
천재현	연출가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

콘텐츠운영부 || 기획팀/무대팀

한지영 부장

기획팀

조성원	팀장
이은주	팀원
장은옥	팀원
강정민	팀원
최나영	코디네이터

무대팀

허 정	팀원
채동석	팀원

대외협력부 || 홍보팀/행사팀

임태영 부장

홍보팀

박수경	팀장
이지환	팀원
유일한	팀원
박소영	팀원
김연아	팀원
박주환	티켓매니저
김경아	티켓고객센터

행사팀

전성호	팀장
전선호	팀원
송지민	팀원
김민준	팀원
임주미	팀원

행정팀

백광일	팀장
최다미	팀원
최윤희	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산업과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화영	문화산업과장
박병윤	예술육성팀장
조현욱	주무관

전주세계소리축제 스태프

무대기술총괄

박기남

무대감독

김응완 김종훈 김성빈 김경훈

무대크루

권수현 김명준 김주찬 서 울 안수호
이건희 박종후 안현주 조병도

사이트매니저

박세진 배희주 노민아 조인영 김유진
윤준석 기획
정성준 박다선 티켓
양세인 양은비 유지현 윤주원 이수현
이종길 장성혁 조윤현 유지훈 행사

통역

정보빈 이와시타 사츠키

음향

이동욱 백영빈 김 울 모악당/연지홀
김현성 김윤호 김현도 모악광장/놀이마당
안민주 이주경 김통일 전라감영
이준희 김동훈 김영호 이호진 중회의장
이진복 이종하 이훈재 유봉준 하정호
유 석 성민석 전귀환 김나영 전시장
이석재 임희준 야외공연장

조명

송인훈 황종현 모악당/연지홀/명인홀
고주은 임백호 안은서 정주혁
모악당/연지홀/명인홀
안호중 김세미 박민경
모악광장/놀이마당
임재덕 이다야 야외공연장

구조물

노강섭 권순문 노시영 최희태
야외공연장

무대

김대한 김종현 무대디자인
염성준 이민준 김태진 이진우 황정환
무대제작(야외공연장)
고영민 윤준호 무대제작
(모악광장/놀이마당/나바위성당)

중계촬영

정윤성 진수미 정다윗 정 찬
야외공연장

LED / 발전기

이성희 야외공연장 LED
박종철 야외공연장 발전기

영상

정해인

악기

배종두 김서학 김현성 이승운 최보람

행사시설

김명규 김용진 김진형 유지훈

찾아가는 소리축제

이조은 이준희 김영호 김동훈

학술세미나

이호진 음향

출연진 수송

박성희 진미현 임 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스태프

이용재 사무처장

경영관리부

고경환 부장
임익종 정범수 차장
이동수 과장
최미송 대리
유민정 나혜연

문화사업부

박홍재 부장

기획사업팀

이기연 이안나 과장
강성웅 김미라 대리
강석민 김승현 박혜민 엄세훈

무대기술팀

박성일 팀장
정대영 대리
박은성 백우진 배태호 기계감독
장정규 과장
연혁찬 안승주 박수영 이후인 무대감독

무대운영팀

박영모 팀장
남성훈 과장
정영모 조중호 장준오 음향감독
박성진 차장
송두영 과장
김찬웅 고은빈 박대한 조명감독

고객지원부

황이동 부장
김미미 차장
안은홍 대리
함지수 노수영 양현규 손예은

소리천사

기획팀

강지선 김지빈 김채은 나진희
문종현 박건우 신동은 윤주혜
이경아 이상건 이성미 이소은
이승은 이윤지 임진경 정바울
정재민 정재항 조아름 최유빈
최유영 최진욱 홍세민

무대A팀 | 모악당/연지홀/전시장/중회의장

김도현 박민주 박재현 배보연
손지연 오승빈 오재근 육승은
육아란 정희민 한상빈

무대B팀 | 야외공연장/모악광장/ 전라감영/나바위성당/명인홀

김다빈 김서연 김주원 손민섭
송윤아 송채원 신동엽 신인준
유진서 이서린 임주은 전주현
조서현 최서영 하승대 한수현
한웅희 홍세주

홍보팀

김려원 김서연 김소현 김유진
김채현 남찬영 박민경 박연우
배은서 서의동 소보란 신혜림
정승헌 정시환 최성원

행사팀

김도엽 김동현 김민호 김승희
김아람 김영선 김주영 김주희
박소연 백현민 서가연 서영주
서희정 유다은 유정민 유혜수
이동현 이은혜

사전소리천사(미소천사)팀

고 혁 김예지 이유리
정미랑 정수빈 하수빈

전주세계소리축제 연보

우리 전통음악을 기본으로 세계적 음악 전통과 현재의 흐름을 소개하는 창조적 축제			
2001	주 제	소리사랑 온누리예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10월 13일 - 10월 21일(10일간)	총 감 독 강준혁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공 연 팀 15개국 142개팀 4,000여명
한국전통음악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적 음악을 포괄하는 종합축제(예술축제+산업형축제)			
2002	주 제	목소리(Voice)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8월 24일 - 9월 1일(8일간)	총 감 독 임진택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통문화특구(현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16개국 156개팀 4,500여명
세계음악의 보편성과 축제성을 토대로 판소리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모색			
2003	주 제	소리, 길, 만남	위 원 장 천이두
	일 시	9월 27일 - 10월 5일(10일간)	총 감 독 임진택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전통문화센터	공 연 팀 14개국 172개팀 5,000명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 및 확산을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2004	주 제	소리! 경계를 넘다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10월 16일 - 10월 22일(7일간)	총 감 독 광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대학교 일원	공 연 팀 14개국 190개팀 2,800여명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연계를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			
2005	주 제	난(亂), 민(民), 협률(協律)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27일 - 10월 3일(7일간)	총 감 독 광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일원	공 연 팀 25개국 190개팀 4,600여명
지역 정체성 확보와 우리 음악의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동참하는 세계화에 초점			
2006	주 제	소리, 놀이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16일 - 9월 24일(9일간)	총 감 독 광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공 연 팀 22개국 184개팀 2,692여명
판소리 중심의 월드뮤직 축제			
2007	주 제	소리, 몸짓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10월 6일 - 10월 14일(9일간)	총 감 독 광병창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내 일원	공 연 팀 10개국 131개팀 2,840여명
판소리 공연의 전진배치로 정체성 확보 및 대중성 강화			
2008	주 제	소리, 오락	위 원 장 안숙선
	일 시	9월 26일 - 10월 4일(9일간)	총 감 독 안영수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주시내 일원	공 연 팀 16개국 280개팀 3,800여명 프 로 그 램 70개 프로그램, 225개 공연 및 행사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2010	주 제	시간을 넘는 소리, 세대를 잇는 감동	위 원 장 김명곤
	일 시	10월 1일 - 10월 5일(5일간)	총 감 독 김정수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전북대삼성문화회관	공 연 팀 9개국 3,200여명 프 로 그 램 44개 프로그램, 213개 공연 및 행사
판소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와 대중화 시도			
2011	주 제	이리오너라 UP GO 놀자!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30일 - 10월 4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일원	공 연 팀 9개국 1,616명 프 로 그 램 50개 프로그램 301회 공연
국악대중화를 통한 소리축제의 위상 강화			
2012	주 제	소리 한 상 가득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3일 - 9월 17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18개국 1,529명 프 로 그 램 41개 프로그램 252회 공연
국악 대중화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면모 갖추기			
2013	주 제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형석, 박칼린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37개국 2,834명 프 로 그 램 51개 프로그램 295회 공연
국악의 다변화로 현대와 소통하는 축제			
2014	주 제	대마디 대장단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8일 - 10월 12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공 연 팀 29개국 1,300여명 프 로 그 램 52개 프로그램 203회 공연

비교음악제 확대를 통한 세계축제로서의 위상 강화					
2015	주 제	소리 Big Party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7일 - 10월 11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28개국 1,300여명	
			프 로 그 램	49개 173회 공연	
‘모던한 공연예술’로서 판소리의 가능성 실현, 축제공간의 만족도를 높여 ‘체류형 축제’로의 변화!					
2016	주 제	세상의 모든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공 연 팀	28개국 1,300여명	
			프 로 그 램	60개 160여회 공연	
관객과의 소통을 확장하며 판소리와 한국음악의 현대적 보편성 확보					
2017	주 제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0일 - 9월 24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33개국 1,100여명	
			프 로 그 램	43개 165여회 공연	
국경과 세대, 성별을 초월한 대동의 판을 연출해 공동체 의식의 복원					
2018	주 제	소리판타지(Sori Fantasy)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3일 - 10월 7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8개국 1,116명	
			프 로 그 램	154회	
세대, 이념, 지역 간의 갈등과 경쟁을 벗어나 전통예술 속에 담겨진 치유와 위로의 가치 전달					
2019	주 제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10월 2일 - 10월 6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20개국 1,082명	
			프 로 그 램	132개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디어·온라인 공연 5選 엄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방역 안전과 미디어 영향력을 우선한 차별화 된 축제					
2020	주 제	_있다(Link)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6일 - 9월 20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비대면/온라인(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공 연 팀	218명(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프 로 그 램	5개 프로그램		898명(19X19챌린지)	
‘판소리’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조명과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 결집, 예술성 있는 작품 소개로 미래 20년의 분기점 마련					
2021	주 제	소리 #20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29일 - 10월 3일(5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00개 단체 391명	
			프 로 그 램	40개 공연	
‘실내중심 공연 예술제’를 표방하며 공연의 질적 가치에 주목, 공연과 공연장소의 확장성 및 전통의 경향성을 제시한 축제					
2022	주 제	더늬(20th+1)	조직위원장	김한	
	일 시	9월 16일 - 9월 25일(10일간)	집행위원장	박재천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부안 채석강 등	공 연 팀	6개국 118개팀 679명	
			프 로 그 램	59개 프로그램 76회 공연	
전면 대면 축제로의 귀환, 정통성과 예술성 높은 다채로운 공연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장한 축제					
2023	주 제	상생과 회복(Co-Existence and Resilience)	조직위원장	이왕준	
	일 시	9월 15일 - 9월 24일(10일간)	집행위원장	김희선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2개국 160개팀 1,105명	
			프 로 그 램	92개 프로그램 108회 공연	
여름 축제로의 전환,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 및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 공연예술축제					
2024	주 제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 (Local Prism: Enlarging Perspectives)	조직위원장	이왕준	
	일 시	8월 14일 - 8월 18일(5일간)	집행위원장	김희선	
	장 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일대	공 연 팀	14개국 126개팀 800명	
			프 로 그 램	80개 프로그램 106회 공연	



JEONJU INT'L SORI FESTIVAL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1층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T. 063.232.8398 F. 063.232.8399

 www.sorifestival.com

 [enjoy_sorifestival](https://www.youtube.com/enjoy_sorifestival)

 [sorifestival](https://www.facebook.com/sorifestival)

 [sori_festival](https://www.instagram.com/sori_festival)

 [sorifestival](https://www.youtube.com/sorifestival)